삼성SDI, 전자소재 수익성 "개선"

메리츠, 소재 영업이익 51% 증가 … 중국 전기자동차 시장도 기대

메리츠종금증권은 1월5일 삼성SDI의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.

지목현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"삼성SDI는 2015년 매출액이 2014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8조1000억원에 불과하나 영업이익은 20776억원으로 193%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"며 "전자재료 중심의 소재 부문 수익성 개선, 대형전지 적자 감소, 적자사업인 PDP(Plasma Display Panel) 사업 철수 영향으로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"이라고 주장했다.

2014년 4/4분기 매출은 약 1조9000억원으로 3/4분기에 비해 3%, 영업이익은 519억원으로 98%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.

4/4분기 수익성 개선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물량 증가로 인한 소형전지 매출 증가, 전자소재의 수익성 개선 등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.

지목현 연구원은 "편광필름은 TV용 대형 사이즈 시장 진입으로 2014년 3/4분기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"며 "2015년에는 주요 수요처 점유율 확대로 영업실적이 빠르게 개선될 것"이라고 전망했다.

이어 "반도체 소재는 전방산업 수요 호조로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"며 "2015년 소재 사업부문 영업이익은 51% 증가해 수익 신장을 주도할 것"이라고 밝혔다.

또 중국 전기자동차 및 ESS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5/01/05>